

마태복음 22장 34-46절 말씀

<1>

- 34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
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
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
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

37 예수께서 이르시되
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
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
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
39 둘째도 그와 같으니
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
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

<2>

①

- 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
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
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
누구의 자손이냐
대답하되
다윗의 자손이니이다

②

- 이르시되
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
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
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
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
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
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
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

46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
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